

<p>[ 리얼미터 12월 3주차 주중동향 ]</p> <p><b>보수 재편 가시화, 새누리·반기문 동반 상승</b></p>	<p>12월 22일</p> <p>AM 09:30</p>
---	--------------------------------

(주)리얼미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회관 신관 7층 전화 : 02-548-4071(대) 8224(F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간 : 2016년 12월 19일 ~ 21일 (3일간)</li> <li>•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9명</li> <li>• 조사방법 : 무선(85%)·유선(15%)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응답(ARS) 혼용</li> <li>•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2.5%p</li> </ul>
--

리얼미터 12월 3주차 주중집계(무선 85 : 유선 15 비율, 전국 1,519명 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비박계 집단 탈당 임박’ 관련 보도 등 보수진영 재편이 가시화되면서 상당 폭 반등하면서 7주째 만에 20%대를 회복했고, 국민의당 역시 영남과 서울, 40대 이하에서 결집하며 4주째 만에 반등하며 다시 10%대 중반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주 만에 하락, 3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고, 정의당은 수도권과 20대, 중도층이 결집하면서 6%대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을 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언론보도가 급증하며 2주 만에 상승, 8주 만에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과 ‘탄핵 기각 시 혁명’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공세를 받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를 멈추고 7주 연속 유지했던 1위 자리를 반기문 사무총장에 내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반문 연대 후폭풍 이후 ‘임기 단축’ 개헌론에 가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당 폭 하락하며 10%대 초반대로 내려앉았으나 5주째 연속 3위 자리를 지켰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는 2주째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4위를 유지했다.

한편, 12월 21일(수)에 실시된 제2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 ‘탄핵 인용’ 응답이 지난주 1차 조사 대비 3.5%p 감소한 72.2%, ‘탄핵 기각’ 응답은 3.0%p 증가한 18.2%로 나타났다([관련 보도자료 참조](#)).

**민주당 35.0%(▼2.7%p), 새누리당 20.2%(▲3.0%p), 국민의당 14.5%(▲2.3%p), 정의당 6.3%(▲0.8%p)**

- **민주당**, 3주째 만에 하락했으나 30%대 중반 유지. 영남권과 수도권, 20·30대, 50대 이상, 중도층에서 이탈, 호남에서는 17주째 국민의당에 앞서
- **새누리당**, 비박계 집단 탈당 임박하며 언론보도 증가, 3주 만에 반등하며 7주 만에 다시 20%대를 회복, 영남권과 수도권, 50대 이상, 보수층 등 주로 여권 성향 지지층에서 결집
- **국민의당**, 4주째 만에 반등. 영남권과 서울, 40대 이하,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결집했으나, 호남에서 17주째 민주당에 밀려
- **정의당**, 수도권, 20대, 중도층 중심 결집하며 소폭 상승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매일경제 ‘레이더P’ 의뢰로 2016년 12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3일간 전국 1,519명(무선 85 : 유선 15 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3주차 주중 잠정집계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12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2.7%p 내린 35.0%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주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울산), 수도권, 20대와 30대, 50대 이상, 중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호남(民 44.3%, 國 26.0%)에서는 40% 중반에 근접하며 국민의당을 17주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비박계의 집단 탈당이 임박하며 언론보도가 증가했던 새누리당은 3.0%p 오른 20.2%로 3주째 만에 반등하면서 11월 1주차(21.4%)이후 7주째 만에 다시 20%대를 회복했다.

새누리당은 TK와 PK, 수도권, 50대 이상, 보수층 등 주로 여권 성향의 지지층에서 결집했는데, 특히 TK(與 31.4%, 民 21.7%)에서는 1주 만에 다시 민주당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국민의당은 2.2%p 상승한 14.5%로 4주 만에 반등하면서 다시 15%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PK와 TK, 서울, 40대 이하, 보수층, 중도층에서 주로 올랐으나, 호남(國 26.0%, 民 44.0%)에서는 17주째 민주당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0.8%p 오른 6.3%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수도권, 20대, 중도층에서는 상승한 반면, TK, 50대, 진보층에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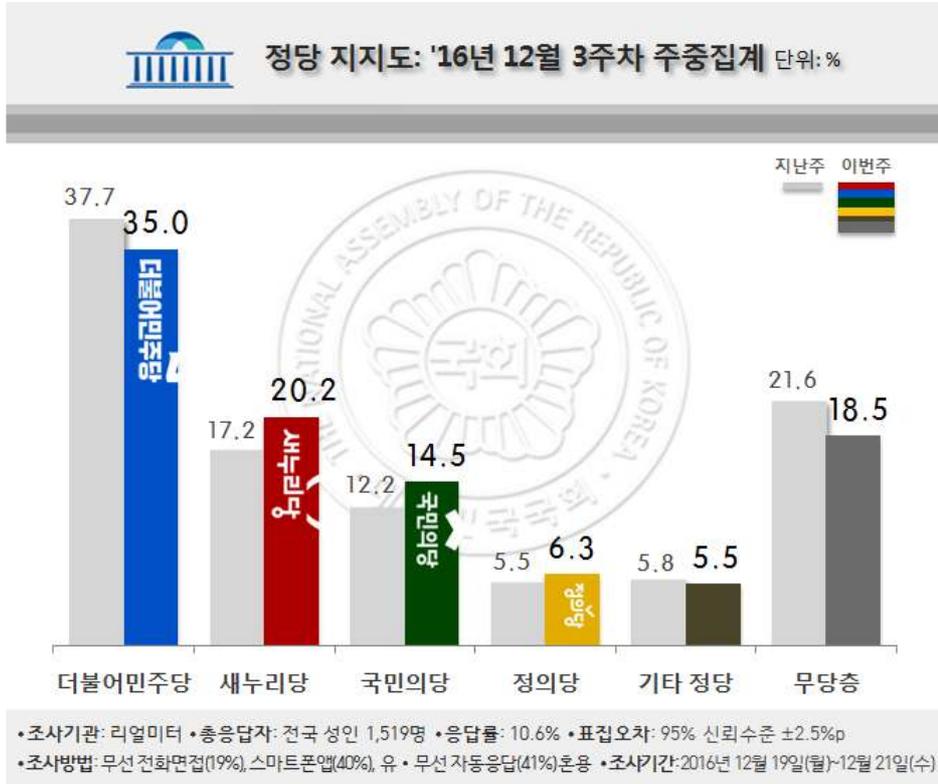
이어 기타 정당이 0.3%p 내린 5.5%,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3.1%p 감소한 18.5%로 집계됐다.

**\*\*\* 다음 쪽 정당지지도 차트 여기에 배치 \*\*\***

민주당의 지지율은 일간으로 19일(월)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8%p 내린 35.9%로 시작해, 20일(화)에도 34.9%로 내렸다가, 21일(수)에는 35.8%로 반등했으나,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7%p 하락한 35.0%로 마감됐다.

언론에 배포되던 기존 ‘주간동향’은 2015년 3월 4주차부터 ‘Weekly Summary Report’의 제목으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며, 언론 보도자료인 ‘주간동향’은 조사 결과 중심의 간략한 내용으로만 배포합니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대구·경북(▼6.4%p, 28.1%→21.7%), 서울(▼5.0%p, 39.4%→34.4%), 부산·경남·울산(▼4.0%p, 37.0%→33.0%), 경기·인천(▼2.4%p, 39.8%→37.4%), 연령별로는 50대(▼5.6%p, 32.6%→27.0%), 20대(▼5.0%p, 52.7%→47.7%), 30대(▼3.4%p, 50.9%→47.5%), 60대 이상(▼3.3%p, 18.3%→15.0%),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4.4%p, 44.2%→39.8%)에서 하락한 반면, 광주·전라(▲3.9%p, 40.4%→44.3%), 대전·충청·세종(▲3.2%p, 37.0%→40.2%), 40대(▲3.2%p, 40.2%→43.4%), 진보층(▲1.3%p, 54.5%→55.8%)에서는 상승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일간으로 19일(월)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4.7%p 오른 21.9%로 출발했으나, 20일(화)에는 19.1%로 내렸다가,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5명이 오는 27일 탈당하기로 결의한 21일(수)에는 19.4%로 소폭 반등하면서,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0%p 오른 20.2%로 마감됐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대구·경북(▲4.4%p, 27.0%→31.4%), 경기·인천(▲3.5%p, 16.0%→19.5%), 서울(▲3.1%p, 19.1%→22.2%), 부산·경남·울산(▲3.0%p, 19.2%→22.2%), 연령별로는 60대 이상(▲5.3%p, 33.7%→39.0%), 50대(▲5.0%p, 23.6%→28.6%), 40대(▲1.5%p, 11.0%→12.5%), 30대(▲1.4%p, 7.0%→8.4%), 20대(▲1.0%p, 5.7%→6.7%),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6%p, 47.8%→52.4%), 중도층(▲1.4%p, 10.3%→11.7%)에서 상승한 반면, 대전·충청·세종(▼1.0%p, 15.1%→14.1%)에서는 하락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일간으로 19일(월)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4%p 오른 13.6%로 시작해, 20일(화)에는 14.5%로 연이어 올랐고, 21일(수)에는 14.5%로 횡보하며,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3%p 오른 14.5%로 마감됐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부산·경남·울산(▲4.8%p, 8.1%→12.9%), 대구·경북(▲4.4%p, 7.1%→11.5%), 서울(▲3.4%p, 11.6%→15.0%), 광주·전라(▲0.5%p, 25.5%→26.0%), 연령별로는 40대(▲3.9%p, 13.3%→17.2%), 30대(▲3.3%p, 9.9%→13.2%), 20대(▲3.2%p, 6.4%→9.6%), 60대 이상(▲1.0%p, 14.0%→15.0%),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4%p, 7.3%→10.7%), 중도층(▲2.8%p, 15.6%→18.4%), 진보층(▲2.7%p, 13.5%→16.2%)에서 상승했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일간으로 19일(월)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1%p 소폭 오른 5.6%로 시작해, 20일(화)에도 6.7%로 상승했고, 21일(수)에는 6.5%로 소폭 내렸으나,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8%p 오른 6.3%로 마감됐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서울(▲3.4%p, 5.5%→8.9%), 경기·인천(▲1.0%p, 6.3%→7.3%), 연령별로는 20대(▲5.3%p, 4.4%→9.7%),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2.5%p, 4.4%→6.9%)에서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1.9%p, 5.1%→3.2%), 50대(▼1.1%p, 4.9%→3.8%), 진보층(▼1.6%p, 12.0%→10.4%)에서 하락했다.

반기문 23.1%(▲2.6%p), 문재인 22.2%(▼1.5%p), 이재명 11.9%(▼3.0%p), 안철수 8.6%(▲0.3%p)

- 반기문, '차대통령 리서십 비판' 발언과 사실상의 대권출마 선언 관련 보도 증가하며 2주째 상승, 8주 만에 文

언론에 배포되던 기존 '주간동향'은 2015년 3월 4주차부터 'Weekly Summary Report'의 제목으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며, 언론 보도자료인 '주간동향'은 조사 결과 중심의 간략한 내용으로만 배포합니다.

전 대표 제치고 1위로 올라서. TK와 수도권, 충청권, 20·30대와 50대, 정의당과 국민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주로 결집

- **문재인**, 개헌과 '탄핵 기각 시 혁명' 발언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세 급증, 7주 연속 유지했던 1위 자리 潘 총장에 내어주며 2위로 내려앉아. TK와 경기·인천, 50대 이상과 20대, 정의당 지지층에서 주로 이탈, 호남에서는 13주째 연속 1위 이어가
- **이재명**, 반문 연대 후폭풍 이후 '임기 단축' 개헌론 가세, 상당한 폭으로 2주째 하락. 호남과 충청권, 수도권, 50대 이상과 30대,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주로 이탈,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文 전 대표 제치고 선두 회복
- **안철수**, PK와 충청권, 호남, 40대,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소폭 결집하며 2주째 완만한 회복세. 서울, 30대, 국민의당·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이탈. 호남에서는 李 시장 제치고 2위 회복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박 대통령 리더십 비판' 발언과 사실상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언론보도가 급증했던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지난주 12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2.6%p 오른 23.1%로 2주째 상승, 지난 10월 4주차 이후 8주째 만에 문재인 전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 총장은 TK(대구·경북)와 수도권, 충청권, 30대와 50대, 20대, 정의당과 국민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주로 상승한 반면, 호남과 PK(부산·경남·울산),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반 총장은 일간으로 '박 대통령 리더십 비판' 발언이 언론의 집중적 주목을 받았던 지난주 주말을 경과하며, 19일(월)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9%p 오른 24.4%로 출발해,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했던 20일(화)에는 22.0%로 하락했고, 유엔본부 한국 특파원단과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한국 발전에 한 몫 불사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21일(수)에는 23.0%로 반등하면서,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6%p 상승한 23.1%로 마감됐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대구·경북(▲8.9%p, 26.5%→35.4%), 경기·인천(▲5.8%p, 17.5%→23.3%), 대전·충청·세종(▲1.7%p, 22.4%→24.1%), 서울(▲1.1%p, 22.4%→23.5%), 연령별로는 30대(▲5.9%p, 8.0%→13.9%), 50대(▲5.3%p, 25.8%→31.1%), 20대(▲4.5%p, 7.4%→11.9%), 40대(▲1.0%p, 17.7%→18.7%),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4.1%p, 4.9%→9.0%), 국민의당 지지층(▲3.4%p, 13.0%→16.4%), 민주당 지지층(▲2.9%p, 6.2%→9.1%),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0%p, 7.0%→10.0%), 중도층(▲2.7%p, 16.4%→19.1%)에서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3.4%p, 12.3%→8.9%), 부산·경남·울산(▼2.8%p, 22.9%→20.1%), 60대 이상(▼2.4%p, 38.2%→35.8%), 새누리당 지지층(▼2.7%p, 58.2%→55.5%), 보수층(▼4.7%p, 45.6%→40.9%)에서 하락했다.

\*\*\* 다음 쪽 대선주자 지지도 차트 여기에 배치 \*\*\*

개헌과 '탄핵 기각 시 혁명' 발언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세가 급증했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1.5%p 내린 22.2%로 7주 연속 유지했던 1위 자리를 반 총장에 내주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문 전 대표는 TK와 경기·인천, 50대 이상과 20대, 정의당 지지층에서 주로 하락한 반면, 호남과 충청권, 무당층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상승했다. 한편, 호남(文 28.1%, 安 17.8%, 李 6.0%)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격차를 벌리며 13주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대표는 일간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던 지난주 주말을 경과하며, 19일(월)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7%p 내린 19.8%로 시작해, 20일(화)에는 22.3%로 반등했고, 21일(수)에도 23.8%로 연속 상승했으나,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5%p 하락한 22.2%로 마감됐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대구·경북(▼5.5%p, 18.1%→12.6%), 경기·인천(▼2.6%p, 26.4%→23.8%), 연령별로는 50대(▼3.1%p, 19.0%→15.9%), 20대(▼2.7%p, 32.6%→29.9%), 60대 이상(▼1.2%p, 9.6%→8.4%),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10.9%p, 33.2%→22.3%)에서 하락한 반면, 광주·전라(▲3.4%p, 24.7%→28.1%), 대전·충청·세종(▲1.4%p, 21.1%→22.5%), 무당층(▲2.3%p, 7.1%→9.4%), 국민의당 지지층(▲1.1%p, 5.7%→6.8%)에서 상승했다.

반문 연대 후폭풍 이후 '임기 단축' 개헌론에 가세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3.0%p 내린 11.9%로 2주째 하락, 10% 초반으로 내려앉았으나 3위를 이어갔다.

이 시장은 21일(수) 일간집계에서 10.3%를 기록하며 지난 11월 21일(10.3%) 이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로 떨어졌고, 주중집계로는 호남과 충청권, 수도권, 50대 이상과 30대,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다수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렸는데, 정의당 지지층(文 22.3%, 李 34.6%)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치고 다시 선두를 회복한 반면, 호남(文 28.1%, 安 17.8%, 李 6.0%)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와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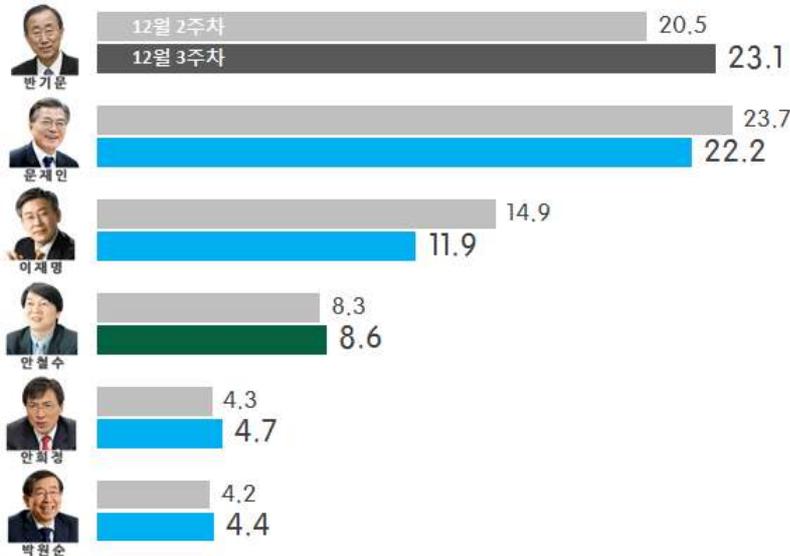
이 시장은 일간으로 19일(월)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2%p 내린 14.7%로 출발해, 20일(화)에는 12.6%로 내린데 이어, '임기 3년 단축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21일(수)에도 10.3%로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0%p 내린 11.9%로 마감됐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광주·전라(▼11.8%p, 17.8%→6.0%), 대전·충청·세종(▼6.3%p, 17.6%→11.3%), 경기·인천(▼3.3%p, 17.5%→14.2%), 서울(▼1.4%p, 13.7%→12.3%), 연령별로는 60대 이상(▼4.8%p, 10.4%→5.6%), 50대(▼4.8%p, 13.2%→8.4%), 30대(▼2.1%p, 19.7%→17.6%), 20대(▼1.7%p, 18.4%→16.7%), 40대(▼1.4%p, 14.7%→13.3%),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5.1%p, 17.3%→12.2%), 무당층(▼4.8%p, 12.9%→8.1%), 민주당 지지층(▼3.9%p, 19.3%→15.4%),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7%p, 21.4%→17.7%), 중도층(▼2.5%p, 16.6%→14.1%)에서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2.4%p, 9.7%→12.1%), 정의당 지지층(▲6.5%p, 28.1%

언론에 배포되던 기존 '주간동향'은 2015년 3월 4주차부터 'Weekly Summary Report'의 제목으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며, 언론 보도자료인 '주간동향'은 조사 결과 중심의 간략한 내용으로만 배포합니다.

→34.6%)에서 상승했다.

**여야 19대 대선주자 지지도: '16년 12월 3주차 주중집계** 단위: %



• 조사기관: 리얼미터 • 총응답자: 전국 성인 1,519명 • 응답률: 10.6% • 표집오차: 95% 신뢰수준 ±2.5%p  
 •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19%), 스마트폰앱(40%), 유선(26%) • 무선자동응답(41%) 혼용 • 조사기간: 2016년 12월 19일(월)~21일(수)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는 0.3%p 오른 8.6%로 2주째 소폭 상승하며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안 전 대표는 PK와 충청권, 호남, 40대,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오른 반면, 서울, 30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내렸는데, 호남(文 28.1%, 安 17.8%, 李 6.0%)에서는 3주째 만에 이재명 시장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대표는 일간으로 19일(월)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3%p 소폭 오른 8.6%로 시작해, 20일(화)에는 8.2%로 내렸고, 21일(수)에는 8.5%로 반등하며,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3%p 오른 8.6%로 마감했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부산·경남·울산(▲2.5%p, 4.6%→7.1%), 대전·충청·세종(▲2.4%p, 6.4%→8.8%), 광주·전라(▲1.4%p, 16.4%→17.8%), 연령별로는 40대(▲3.3%p, 7.4%→10.7%),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1.1%p, 4.5%→5.6%), 민주당 지지층(▲1.0%p, 4.6%→5.6%),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6%p, 4.7%→6.3%)에서 상승한 반면, 서울(▼2.7%p, 10.7%→8.0%), 30대(▼2.8%p, 10.1%→7.3%), 국민의당 지지층(▼3.5%p, 34.8%→31.3%), 새누리당 지지층(▼1.8%p, 3.4%→1.6%)에서 하락했다.

다음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4%p 오른 4.7%로 5위를 유지했고, 이재명 시장과 '임기 단축' 개헌론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도 0.2%p 오른 4.4%로 6위를 기록했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의원이 각각 1.2%p, 0.7%p 오른 4.1%로 공동 7위,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 대표가 0.4%p 상승한 2.6%로 9위, 남경필 경기지사가 1.0%p 오른 2.1%로 10위, 홍준표 경남지사가 0.4%p 상승한 2.0%, 김부겸 의원이 지난주와 동률인 1.5%, 원희룡 제주지사가 0.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2.6%p 감소한 8.0%.

이번 주중집계는 2016년 12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9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19%), 스마트폰앱(40%), 무선(26%)·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병행 임의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전화면접 20.9%, 스마트폰앱 58.1%, 자동응답 5.3%로, 전체 10.6%(총 통화시간 14,273명 중 1,519명 응답 완료)를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일간집계는 2일 이동 시계열(two-day rolling time-series) 방식으로 19일 1,003명, 20일 1,010명, 21일 1,017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은 19일 9.9%, 20일 11.3%, 21일 9.6%, 표본오차는 3일간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일간집계의 통계보정 방식은 주중집계와 동일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얼미터 트위터, 페이스북 : @realmeter)

언론에 배포되던 기존 '주간동향'은 2015년 3월 4주차부터 'Weekly Summary Report'의 제목으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며, 언론 보도자료인 '주간동향'은 조사 결과 중심의 간략한 내용으로만 배포합니다.

- ◆ 리얼미터의 정례 전국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85 대 15로 반영하여 조사하고 전화면접(CATI)과 스마트폰앱(SPA) 및 자동응답(ARS) 방식을 병행합니다. 휴대전화 조사는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조사에서는 어렵지만, 전국조사에서는 무작위 번호 생성 방식으로 조사가 가능하여 85%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응답 방식은 갤럽, 라스무센 등 미국 여론조사 회사도 사용하고 있는 전화조사의 유용한 한 방식입니다. 응답자가 주변 사람을 의식해 자신의 솔직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번호를 직접 누르는 식의 비밀투표 방식이고, 조사의 진행과정이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 ◆ 휴대전화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조사, 그리고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조사는 현재 정당 경선여론조사와 정책조사에서만 허용이 되고 언론사 여론조사 등 정당 외 조사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아, 전국조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 ◆ ARS 조사 관련해서는 한국조사협회(KORA: 前 한국마케팅조사협회)가 지난 2014년 7월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실제 여전히 소속 회원사들이 ARS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소속 회원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결의안 채택과는 상반되게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KORA 회원사의 20% 이상이 ARS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 반면 한국정치조사협회(KOPRA) 회원사들은 선진국의 유명 여론조사기관처럼 ARS 조사방법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전화면접 조사방법과 함께 혼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ARS 조사도 나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사과정과 통계과정에서의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되면 효율적인 조사방법이기 때문에, 선진국 유명 회사들이 조사를 채택하고 있고, KOPRA 회원사들 역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 향후 리얼미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조사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사도 과감히 도입하여, 기존 매체를 통한 조사방법의 한계를 극복한 선도 조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